

황정음, 울고 고문당하고... 굴곡 많은 인생 '끝없는 사랑'

등록 2014.07.31 16:09:03 | 수정 2016.12.28 13:09:12



【일산=뉴스시스】박영주 기자 = 탤런트 황정음(29)이 고문관에게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등 건디기 힘든 고문에 시달렸다.

27일 방송된 SBS TV '끝없는 사랑' 12회에서도 서인애(황정음)는 또다시 서빙고 고문실에 갇혔다. 10대 때 억울한 사연으로 소년원에 갔다가, 배우 생활을 할 때도 민혜린(심혜진)의 부하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황정음은 31일 경기 탄현동 SBS일산제작센터에서 "처음에는 대역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장면이라 재미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고문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뺨을 실제로 맞으니 화가 저절로 난다. 감정이 나오는 게 좋다"고 웃었다.

"인애는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고 자아를 다 잃어버린다. 힘든 연기가 될 것 같다. 전과 같았으면 너무 어려워서 밖에도 못 가고 대본만 봤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니깐 지금은 내려놔야.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애의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 고문처럼 센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다. 인애가 성숙해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다. 우리 드라마는 영화 같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황정음은 출생의 비밀을 안고 복수를 꿈꾸는 '서인애'다. 왜곡된 시대의 희생양으로 참담한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절망하지 않는 긍정적인 캐릭터다.

전작 '비밀'과 마찬가지로 눈물 연기가 많다. "'비밀'을 찍기 전까지는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다. 신나서 우는 신도 잘 울었고 재미있었다.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이번 드라마도 초반에 감정이 쌓이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우는 신은 할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댓글을 보면 '우는 것만 잘하면 연기 잘하는 거냐?'는 말도 있다. 속상하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이 발달 돼서 궁금한 걸 찾아보면 해결이 된다. 작가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다. 기적 같은 일도 실제로 일어난다.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고 믿어야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대본 암기도 쉽지가 않다. "그 시대 말을 쓰다 보니 대본이 어렵지만, 투덜댄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시대를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 살지 않은 시대기 때문에 작가님의 허락하에 살짝 고쳐가고 있다"고 웃었다.

황정음은 "표현하는 것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많이 부족한 걸 느낀다. 작품을 통해 서서히 늘어가겠다"고 각오했다.

함께 출연 중인 탤런트 심혜진은 "황정음은 백지장 같은 흡수력이 있다. 갑자기 연기가 확 늘고 감성이 풍부해졌다. 같이 한 드라마에 나오면서 같은 신을 연기할 때 저 친구의 눈빛을 보면 몰입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낀다. 잡생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 하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다. 굉장히 성실한 배우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끝없는 사랑'은 격동의 1970년대부터 80~9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치열하게 살아남은 주인공들의 꿈과 야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SBS TV '무사 백동수' '산부인과' '타짜' 등의 이현직 PD와 MBC TV '에덴의 동쪽' '폭풍의 연인' 등의 나연숙 작가가 만든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9시55분 방송된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